보도시점 배포후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26.(목)

ESS 중앙계약시장 14개소 선정

- ESS 중앙계약시장, 전남·전북·충남 및 제주 등에 ESS 14개소 구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11월 26일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중앙계약시장은 ESS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육지 1,100MW, 제주 80MW 등 총 1,180MW의 물량을 입찰 공고한 바 있다.

입찰 평가결과, 전남 6개소 · 전북 5개소 · 충남 1개소 및 제주 2개소 등 14개소에 대해 총 1,194MW의 ESS 물량이 낙찰되었으며, 최종 낙찰 물량은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12월 4일 최종 발표한다.

<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 선정 결과 >

지역명		연계 변전소	ESS 개소	낙찰 물량(MW)	공고 물량(MW)
육지	전남	해남 등 5개	6개소	539	1,100* * 105%(1,155MW)까지 낙찰 가능
	전북	소성 등 3개	5개소	480	
	충남	논산	1개소	96	
	소계			1,115	
제주		표선	2개소	79	80
합계			14개소	1,194	1,180

이번 선정평가는 기존 계통관리변전소 중심의 평가에서 전국 계통여건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ESS 연계 필요성과 계통 안정화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ESS가 최적 입지에 구축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ESS의 설비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안전성 및 산업 경쟁력 기여도에 대한 높은 평가비중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최종 물량이 확정되는 12월 4일 이후, 사업자는 2027년 8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29년 2월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2027년 상반기 중 4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여,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확대, 반도체 팹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1-5850)
		담당자	사무관	김유범 (044-201-585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